

# 제조업체 4분기 BSI, 2분기 연속 하락 전망

### 전북 기업경기전망지수 BSI 93, 성장둔화로 경기 회복에 구름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고금리 부담에 따라 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어 경기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주·익산·군산·전북사남 4개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회장 김정태)가 공동으로 도내 110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2024년 4/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93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일 경우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도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전망은

살펴보면 매출액(95), 영업이익(93), 설비투자(96), 자금사정(90)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밑돌며 다음 분기에도 부진을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33)와 자동차부품(133)은 기준치를 상회하여 경기가 '호전'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섬유·의복(90)과 화학(84), 비금속(71), 바이오농식품(67)은 원료 공급망 제한 및 수출시장 불안으로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바이오농식품 업종(67)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음 분기 전망을 매우 부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85)과 중소기업(97) 모두 기준치 '100'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중견기업은 전분기 대비 수치가 30포인트

트 하락하여 4분기 전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 유형별로는 수출기업(94)과 내수기업(93) 모두 기준치인 100을 밑돌며 글로벌 경제 침체와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인해 동반 부진을 전망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영업이익 실적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응답 기업들의 55.4%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 중 '소폭 미달'이 31.8%, 크게 미달이 23.6%로 나타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4년 4/4분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6.4%가 '내수 소비 위축'이라고 답했으며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30.9%)', '고금리 등 재정부담(10.2%)', '수출국 경기침체(9.6%)', '환율변동성 확대(7.0%)', '기업부담법안 등 국내정책 이슈(3.7%)', '관세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1.1%)' 순으로 응답하였다.

업종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모든 업종에서 '내수소비 위축'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특히, 바이오농식품 업종은 42.1%로 나타나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고 "정책 당국은 금리 인하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 국산 고구마 '폐놀산' 듬뿍

### 농진청, '항산화 효과' 고품질 고구마 품종개발 활용 기대

농촌진흥청은 14개 연구기관과 함께 케이(K)-농식품자원의 특수 기능성분 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인이 섭취하는 농식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능 성분 함량 등 정밀 정보(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폐놀산'을 소개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산 고구마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폐놀산 유도체 34종이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고구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식량 작물 중 하나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필수 영양분과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분도 많이 함유해 영양·건강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농산물이다.

특히, 고구마에 함유된 폐놀산은 세포 내 산화억제 등 항산화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그러나 국산 고구마를 대상으로 폐놀산 유도체 종류를 찾고 함량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정밀 분석 결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 '신자미'에는 이소클로로젠산 에이스(isochlorogenic acid)를 비롯해 총 34종의 유도체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4종의 폐놀산 유도체 중 히드록

시벤조산 계열 성분 6종은 고구마에서 세계 최초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새로 확인된 성분에 나시포믹산, 다리포믹산 등의 이름을 붙여 발표했다.

자색고구마인 '신자미'는 폐놀산 함량이 83.8mg으로 밤고구마 '진홍미' (26.3mg)와 호박고구마 '주황미' (12.7mg)보다 각각 3.2와 6.6 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현재 농식품 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에서 고구마를 비롯해 다양한 농식품 소재의 폐놀산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정보를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며 "우리 농산물이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정보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자물련 연구소 한선경 소장은 "폐놀산과 같은 기능 성분 확인으로 국산 고구마의 품질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증진, 농가 소득 증대,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신 품종 고구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JB문화공간, 성기선 예술감독 '클래식 렉처 콘서트#2'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에서는 전주시립교향악단 성기선 상임지휘자와 함께하는 클래식 렉처 콘서트 '러브 인 뮤직(Love in Music) 시즌2' 두 번째 공연을 성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주 JB문화공간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클래식 렉처 콘서트 '러브 인 뮤직'은 전주시향 성기선 상임지휘자가 기획을 총괄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를 초청해 해설과 연주를 함께 하는 고품격 클래식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에는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 콘서트 리뷰 등에서 음악성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강지은이 클라리 수반의 '세계의 로망스 중 1번, 안단테 op.21'를 비롯해 로베르트 슈만 에미미 비치 등의 명곡들을 수준 높은 연주로 들려줬다. /오만호 기자

## 새만금 첫 도시 '수변도시' 홍보 나섰다

### 새만금청·새만금공사, '집코노미 박람회' 참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영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지난 27일~28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홀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가해 새만금 개발사업과 새만금의 첫 도시인 '수변도시'를 홍보했다.

특히, 이번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과 새만금 수변도시를 중점적으로 알렸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의 각종 이벤트를 홍보하고 신규기업 유치를 위해 행사장 내 새만금관을 직접 운영하며 기업 투자 상담 등 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첫 도시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변화된 환경에

따라 첨단산업과 연계한 기업지원 중심으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중이며 이를 박람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사업설명회와 수변도시 분양례터 구독 이벤트를 열어 일박한 새만금 수변도시의 '첫 분양'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투자 의견 수렴과 예비 수요조사도 진행했다.

최근 새만금은 제1호 새만금 투자진 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입주기업 대상 임대주택·통근버스 제공 등 친기업 정책으로 첨단제조산업의 중심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ESG를 등 이차전지 분야 세계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서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업을 키워내기 위한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 개발용지 내 6.6㎢(200만 평)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며,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닌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수변도시가 기업지원형 배후도시 역할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의국교육기관 유치, 입주기업 대상 주택 특별공급제도 추진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다. /오만호 기자

## 한전 전북본부,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최근 외부전문가(언론인, 대학교수 등)들로 구성된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이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공사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컨설팅과 도농사랑 사회공헌 활동 등의 경영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전력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안전컨설팅이란, 수요자 맞춤형으로

시행되는 안전 교육으로 유사 산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협력사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전에서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나눔 활동(육내 전기시설 보수 비상 의약품 키트 제공)과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멘토링 활동 내용도 공유했다. 이날 연원섭 본부장은 "도내 전기공



사 협력회사에 대한 안전컨설팅 지원과 농촌지역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전 전북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경진원, 기업으로 해소 거버넌스 간담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26일 경진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기업으로 해소 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5개 분야 13개 지원기관에서 기업지원과 애로해소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공유하고 기업애로해소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거버넌스를 통한 기업의 복합애로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8월 1일 체결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북 내 기업들의 복합애로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지원·해소하여,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진원 윤여봉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졌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